다양한 재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통해 스스로 훈련

서 명 수 · 연극평론가 | 중앙대학교 불어학과 교수

프랑스에서의 연극 및 문화 · 예술인 양성

1959년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프랑스는 최초로 정부조직 내에 문화부를 신설하게 된다. 그 후 문화부는 프랑스 국가가 지향해야 할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천, 나아가 제도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연극인(또는 문화 · 예술인)이 양성되는가?" 라는 질문은, 우선 '문화의 민주화(dem'ocratisation culturelle)' 라는 프랑스 문화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의 민주화란, 문화에 대한 교육이 부재할 때 단순히 저속한 대중화 또는 재생산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도 문화와 교육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문화교육 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문화부와 교육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호협력를 구축하고, 나아가 연극인 양성을 양성하는지 알아본다.

초 · 중등교육과정에서 문화부와 교육부의 역할 및 상호협력

1938년 샤를르 듈랭(Charles Dullin)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고급의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민주화' 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문화의 지방분산(decentralisation)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이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47년 시작된 장 빌라르(Jean Vilar)의 아비뇽 페스티벌이나, 1959년 문화부의 초대 장관을 맡은 앙드레 말로(Andre Marlaux)의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예술작품의 보급 및 창작지원' 정책도 듈랭의 정신을 받아들여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이었다. 또 앙드레 말로 이후 최근의 자크 랑(Jack Lang) 장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정책이 전개되어 왔지만, 그 바탕은 한결같이 '문화의 민주화' 와 이를 위한 지방 분산이었다.

여하튼 제 2차 세계대전의 폐허로부터 재건에 성공한 프랑스가 제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1959년 정부조직 내에 문화부를 설립한 것은, 간과되어 왔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문화·예술관련 사업이 문화부에 집중되면서, 타 부서들로 하여금 문화·예술과 절연하는 결과, 즉 역기능도 생겨났다. 특히 그 이전에 가장 주도적으로 문화·예술을 관장했던 교육부로부터 관련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된 후, 문화와 교육은 별개의 것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문화와 교육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부)와 교육(부) 두 분야는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세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의 확대를 통해 창조적인 문화 민주화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

1) 랜도우스키 안(plan Landowski)

1964년 음악 분야가 먼저 이 두 부서의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위해 1969년 '랜도우스키 10개년 계획안'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역 음악원(conservatoire de la Région)을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대학교도 초등교육기관에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른 말로, 전문가들이 교육부 소속 기관에서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 즉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교육기관 혹은 문화부와 교육부 사이에 인적·교육학적 교류와 협조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뜻한다.

2) FIC(문화사업기금 ; Fonds d'intervention culturelle) 과 〈10% 수업〉

또 말로 장관의 뒤를 이은 뒤아멜(Duhamel) 장관은 '문화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문화 관련 사업이 정부의 타 부처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1970년에는 FIC를 만들어 문화·예술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이에 교육부도 1973년에 〈10% 수업〉을 시행하여, 교사에게 자유롭게 수업시간의 10%를 예체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뤽 부서(mission Luc)

1975년에는 교육부에서 '지적·예술적·신체적 균형' 및 '소질과 취미의 개발'이라는 교육원칙을 수립하였고, 1977년 뤽 부서를 신설,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과 문화·예술가들을 연결시키고, 교육을 문화 활동쪽으로 유도함으로써, 이를 실천하려 하였다. 1979년에는 'PACTE(교육문화활동계획서 ; projets d'activites educatives' et culturelles)'가 그리고 1981년에는 'PAE(교육활동계획서 ; projets d'activités éducatives)'가 작성되어 뤽 부서의 활동을 도왔다.

4) DDC(문화발전국 ; Direction du développement culturel)

1982년 랑 문화부 장관은 전면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DDC를 신설하고 그 예산도 두배로 확충하였다. DDC를 통해 문화부와 교육부 사이에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공식적인 협정서가 작성되었고, 그 결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미술교육 학위가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1990년 DDC가 DDF(교육발전처' ; Delegation au developpe- ment et aux formations)로 승격되어 예술교육 강화를 통한 문화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고,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 학위를 7과목(음악, 미술, 응용미술, 예술사, 영화 및 시청각, 무용, 연극)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몇 가지 계획이 추가되고, 문화·교육

대학교에서의 연극관련 전문교육은 다양하고, 보다 이론적이면서, 더 열려있다. 대학교에서는 연극의 이론과 연극사의 중요 사항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이 '탐구'를 축으로 묶이면서 교육이 시행되는 인문학적 방식을 취한다.

부의 상호협력과 더 많은 예산편성으로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은 더욱 확대 강화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각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교육을 연계시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등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 전문인 양성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은, 음악이나 무용처럼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보통·대중·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선택·필수의 교양과정이다. 그러나 고등교육과정은 그야말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교육부 산하의 대학교와 문화부 산하의 예술 전문교육기관(음악원, 미술원, 무용원, 연극원 등등)에서 이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교는 이론, 예술 전문교육기관은 실기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연극전문교육

연극의 예를 들면, 전문배우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의 문화부에 소속된 CNSAD(파리국립연극원 ;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art dramatique)과 TNS(스트라스부르그 국립연극학교 ; Ecole du Théâtre national de Strasbourg)가 있고, 교육부 소속으로는 ENSATT(리용국립공연예술·기술학교 ;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et techniques du théâtre)가 있다. 또 보르도(Bordeaux)와 몽펠리에(Montpellier)에 각각 주관할국립원(Conservatoire national de région)이 있다. 한편 사설 교육기관으로는 르콕학교(Ecole de Jacques Lecoq)가 전문배우들을 양성하는 훌륭한 곳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CNSAD를 보면, 지원자에 대한 나이 제한(18세 이상 24세 미만) 및 대학에 준하는 1년간의 연극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두 번까지 응시가 가능하며, 세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실기 2회, 최종 서류)를 통과해야 입학이 허락된다.

교육기간은 3년인데, 1학년은 연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테크닉을 배우고, 2~3학년은 각 개인의 특성에 따른 훈련을 한다. 교수들은 코메디 프랑세즈의 배우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수업 중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CNSAD와 TNS의 학생들은 졸업 후 주로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에서 배우로 활동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전문배우로 독립할 때까지 3년 동안 JTN(국립청년극장 ; Jeune théâtre national)에서 일할 수 있다. 또 졸업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무대의 전문 스태프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위에 언급한 TNS와 ENSATT가 있고, CFPTS(바뇰레 공연기술전문교육센터 ; 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de techniciens du spectacle), ISTS(아비뇽 고등공연기술원' ; Institut supereur des techniques du spectacle) 등이 있다.

특별히 인형과 인형극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샤를르빌 – 메지에르 국립고등인형예술학교(Ecole nationale

supéreure des arts de la marionnette)가 있고, 서커스 전문인을 양성하는 샬롱 앙 샹파뉴 국립서커스예술센터(Centre nationale des arts du cirque)가 있다.

2) 대학교

대학교에서의 연극관련 전문교육은 다양하고, 보다 이론적이면서, 더 열려 있다. 대학교에서는 연극의 이론과 연극사의 중요 사항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이 '탐구'를 축으로 묶이면서 교육이 시행되는 인문학적 방식을 취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교육은, 앞서 언급한 연극전문교육기관과 달리, 사유와 분석이 중심이 되는 이론 수업과 아뜰리에(스튜디오)와 현장연수가 중심인 실기수업이 병행되는 이중적 형식을 보인다.

또한 대학교의 UFR(연극학 계열 ; Unité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에서는 국립과학연구소(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혹은 다른 대학과의 연계 아래, 연구자들에게는 보다 심화된 교육(석사 및 박사)을 실시하고, 이들이 연구를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학생들에게는 언어 · 예술 · 인문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지식과 사고를 발전시키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전공 이외의 다른 과목을 필히 수강해야 한다.

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위는 어느 정도 높은 지식수준과 사고수준을 인증하고, 또 연극관련 직업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위의 예술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기 전 또는 받는 동안이나 받은 후, 또 전문 직업을 갖기 전 또는 갖고 있는 동안이나 후에 대학의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학위가 자동적으로 연극계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연극관련 직종(연기, 연출, 무대술, 극작, 비평, 행정, 관객 관리 등) 또는 연극실기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문화 관련 직종, 학교와 관련된 비전문적 실기 직종, 교육직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파리 3대학 연극학 계열의 경우 다른 모든 대학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대학입학자격증(Baccalauréat) 소지자는 모두 입학이 가능하나 지원자 수에 따라 선발을 거칠 수 있다. 3년간 1000시간의 수업을 받는데, 그 중 이론이 600시간 실기가 4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이 높아 가면서 실기의 비율이 이론보다 커진다.

대학에서는 이미 직업을 가진 연극전문인을 위한 일종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2년 과정이며, 교육정도와 직업경험을 평가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과정을 마친 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규과정의 3학년에 편입할 수도 있다. 기직업인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다양하다. 2년차의 학생들은 1년차에서 공부했던 교수들 중에서 지도교수를 선정, 강의 종료시 소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전국에 있는 11개의 국립연극센터(CDN ; Centre dramatique national)에는 모든 연극전문인들을 위한 평생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모든 민중이 수준 높은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의 민주화정책과 초 · 중등교육과정에서 전문인들을 통한 문화교육의 대중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부와 교육부도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제를 통해 이 두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의 일반 대중은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능과 취미를 발견하고, 후에 다양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으로 양성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재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완성해 나간다.